

'세관 마약' 무혐의 처리 논란... 임은정에 '화살' 빗발

(서울동부지검장)

林 “경찰 진술 믿기 어렵고 압수수색서 증거 못 찾아”
반발 여론 지속에 관세청 이메일 보내 “해명하라”
白 “검찰이 국민 속여”... 시민단체도 “추가 수사하라”

‘세관 직원들의 마약밀수 연루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 수사에서 마약 밀수범들이 밀수 범행에 ‘세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든 이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대통령실의 개입이나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백해룡 경정과 일부 여론 지지자, 시민사회단체 일각의 반발이 일자 임 지검장은 14일 수사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그는 이날 SNS를 통해 “마약 밀수범들이 합수단 수사에서 말을 바꾸었고, 경찰에서의 진술 역시 말이 계속 바뀌었거나 모순되는 등 마약 밀수범들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세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 등에서도 관련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 지검장은 “수사 결과에 대해 ‘세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 많은 마약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는 의문을 많은 네티즌이 제기하고 계신다”면서 “합수단 역시 마약 밀수범들의 입국 과정을 자세히 살폈기에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보도자료에 상세히 담으려고 했지만, 관세청 업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약조직에서 마약 밀수를 위해 공금 해하고 알고 싶은 정보가 서울동부지검 보도자료에 차마 담지 못했다”고 적었다.

또한 보도자료 배포 후 관세청장에게 ‘이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관세청 문제이고, 아니라 이제 이재명 정부의 관세청 문제이고, 대한민국 국격의 문제다. 관련 수사 결과도 발표됐으니 관세청에서 해명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홍보해 달라’는 내용이 이메일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업무보고 현장에서 관세청을 질타했다. 대통령이 이 사건에 관심이 크셨던 만큼 상세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으셨을 테니 이 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며 “세관이 모든 마약밀수범을 적발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불만



백해룡(오른쪽) 경정이 9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사건과에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본부세관, 김해세관, 서울본부세관과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해하는 국민이 이렇게나 많으니 관세청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발 여론이 큰 만큼 수사 결과는 정당성에 대해 관세청이 나서 적극 홍보해 달라라는 취지다. 반면 백 경정은 SNS를 통해 합수단 수

사결과를 반박하며 임 지검장 등을 공격했다. 그는 이날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관세청은 코로나 시기에도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이 없었고, 언제 항공수요가 정상화될지

예측할 수 없어 정상 인원으로 근무했고 그 인원 그대로 같은 임무를 수행했다며 당시 이온스캐너, 마약탐지키트, 마약탐지견 등 모두 가용한 상황이며 당시에 마약단속을 위한 장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계시글을 올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동부지검이)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찰은 여전히 왜곡된 정보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고 비판했다.

또한 “마약계이트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을 낱알이 알아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알권리가 됐다”며 “마약계이트 사건은 공개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도 동부지검의 수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세관 직원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밀수범들이 인천공항 세관 검색대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는지, 또한 외압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 직원들, 조병노 경무관, 경찰 지휘부 등 다양한 경로로 청탁이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수사가 최종 마무리된 것은 아니므로 남아 있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번 합수단 중간수사 결과를 근거로 백해룡 경정의 수사 외압 폭로를 개인의 오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제보를 비난하는 것은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제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결국 ‘입증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제보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김현정 “국힘 통일교 특검, 도둑이 제 발 저려 큰소리치는 격”

(민주당 원내대변인)

〈1면에서 계속〉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을 들고 나왔다. 도둑이 제 발 저려 큰소리치는 격”이라고 역공에 나섰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을 앞장서서 반대하던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중진인 나경원 의원이 통일교 관계자와 통화하며 ‘일정을 어레인지하고 싶다’는 취지의 녹취까지 공개됐다”며 “제3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 역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검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비판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을 들고 나온 건, 도둑이 제 발 저려 큰소리치는 격에 불과하다”고 직격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관련 의혹의 핵심 근거라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은 오라가라하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위협이 있다면 절차대로 수사하고 책임을 지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며 민주당 로비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전재수 전 장관 등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민주당 인사 관련 의혹이 새물결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국민의힘 인사의 추가 연루 의혹이 나오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계산이다.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여론에 밀릴 대로 밀린 상황에서 이른바 ‘오십보백보’ 전략은 실(失)보다 득(得)이 많다는 것이다.

송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민중기 특검이 그동안 공개고 있었던 통일교 민주당 정치자금 의혹 규명을 위한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꼭 필요하다”며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관련 수사자료를 통해서, 민주당과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접촉, 금품수수 의혹이 연일 새물결에 드러나고 있다”고 말

했다. 또한 “전재수 전 장관, 임종성 전 의원에 더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비서실장, 김연철 전 장관 등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과 통일교 간의 유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며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불법 정치자금 청탁의 대가 지급, 조직적 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은 더 이상 민주당 개별 인사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 사안은 이제 분명한 ‘통일교-민주당 게이트’로 확산되



송인석(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연루 의혹 특검 제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분명히 ‘통일교-민주당 게이트’로 규정한다”며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관련자 누구도 예외 없

이 진실을 밝히고, 이 정권과 권력 주변에 얽힌 검은 거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25년 경력의 일간지 교열기자가 말하는 글 고치고 다듬는 기법 공유

군더더기 없고 쉽게 읽히는 간결한 문장
에세이 읽을 때와 비슷한 속도와 난이도
애매한 '어문 법' 익히고 싶은 분에게 추천

다	쓴	글	도
	다	시	보
		자	

단순히 말을 문자로 옮기면 글이 된다.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듯이 글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말에 '듣는 이(聽者)'가 있듯이 글에도 '읽는 이(讀者)'가 있다. 혼잣말을 듣는 이는 자신이며 일기를 읽는 이 역시 자신이다. 실언(失言)을 부끄러워해야 한다면 실문(失文) 역시 부끄러워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면 쓰는 글이 좋아야 읽는 이의 평도 좋을 것이다.

-서문에서

박재역 지음 | 336쪽 | 20,000원 | 글로본출판